

KORMARC형식(단행본용)의 개정에 관한 연구

A Study for Revision of the KORMARC Format (Monograph)

이 두 영 * 최 석 두 **
이 상 현 *** 오 동 근 ****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8. 총서명 |
| II. 개정 및 보완 내용 | 9. 주기 |
| 1. 레코드 구조 | 10. 주제명부출표목 |
| 2. 리더 | 11. 연관저록 |
| 3. 제어필드 | 12. 참조사항 |
| 4. 저자명 | 13. 비표준부호데이터필드
및 링크 |
| 5. 서명 | 14. 표시상수 |
| 6. 판차 | III. 맺는말 |
| 7. 형태기술 | |

초 록

KORMARC형식은 협동목록으로서의 처리능력, 국가서지 기술형식으로서의 포괄성 및 간결성 그리고 국제교환용으로서의 호환성 및 확장성을 가져야만 한다. 따라서 기술규칙에 충실하고, 전산처리에 편리하고 冗長性이 없으며, 국제표준을 준용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이 1984년에 발표한 KORMARC 단행본용 형식을 이와 같은 관점에서 검토하고 개정한 것이다.

키워드 : KORMARC, MARC,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 기계가독형목록

ABSTRACT

MARC format for bibliographic data is to make the functions of shared cataloging easier and to provide exhaustivity for storing national bibliographic information, and powerful and flexible structure to communicate with international cataloging information. KORMARC format was developed in 1984 to form the basis for storing bibliographic information in a consistent and non-redundant form, and for sharing that information and manipulating it by computer.

MARC format needs evolution to make the format more consistent and more useful, and to support new forms of material and new forms of contro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and discuss the original KORMARC format for monographs developed by the National Central Library in 1984 in order to provide the basis for a new revised format and format integration.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I. 머리말

1984년에 제정된 KORMARC(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 단행본용)은 지금까지 사용되어 오던 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그것은 KORMARC 제정당시와 제정 후의 상황을 보면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즉 MARC 제정작업은 초기에 소수 선학들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실무현장은 일반적으로 MARC 사용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으며, MARC에 대한 또한 단행본용 형식 제정 후 오랜동안 개정작업이 없었으며, 연속간행물, 비책자자료, 古書, 典據데이터 등의 MARC 형식에 대한 신규 제정작업이 뒤따르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를 보다 복잡하게 만든 원인이 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KORMARC형식에 대한 연구가 韓國情報管理學會 주관으로 기존 단행본 형식의 개정, 연속간행물 및 비책자자료형식의 신규제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이두영 등, 1991; 사공철 등, 1991; 현규섭 등, 1991).

MARC형식은 서지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정보교환용 형식이므로 자료의 종류, 도서관시스템의 종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KORMARC형식도 ① 협동목록으로서의 처리능력, ② 국가서지 기술형식으로서의 포괄성 및 간결성, ③ 국제교환용으로서의 호환성 및 확장성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KORMARC 단행본용 형식의 개정연구는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표준포맷-단행본용」(국립중앙도서관, 1984)을 기본으로 삼아 다음의 관점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 기술규칙에 충실한가
- 전산처리에 편리한가
- 冗長性은 없는가
- 국제표준을 준용하고 있는가

그러나 상기 개정연구는 단행본용, 연속간행물용, 비책자자료용 세 형식의 통합을 전제로 한 현실적인 연구였기에 각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수렴하기 어려운 부분도 인정해야 하는 고 통과 현재의 형식을 고집해야 하는 입장도 이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음을 밝히는 바이다.

본고에서는 전술한 연구중 KORMARC 단행본용형식 개정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원칙적인 측면에서 논하고자 한다.

II. 개정 및 보완내용

1. 레코드 구조

MARC형식은 기관간에 서지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정보교환용 표준형식으로 각각의 내부형식에서 표준형식으로 변환하여 외부에 서지정보를 보내거나 외부에서 표준형식으로 서지정보를 받아서 내부형식으로 변환하여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국내 사정에서의 특별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국제표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므로 ISO

646(ISO 646, 1983)에 따라 경계기호(deli-miter)는 IF(16), 레코드종료기호(record terminator : RT)는 ID(16), 필드종료기호(field terminator : FT)는 IE(16), 채움문자(fill character)는 7C(16) 등으로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ISO 2709(ISO 2709, 1981)에 따라 레코드 구조를 「리더, 디렉토리, FT, 제어번호필드, FT, 제어필드1, FT, ~~~, 제어필드n, FT, 데이터필드1, FT, ~~~, 데이터필드n, FT, RT」과 같이 정의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KORMARC에서는 경계구분기호는 \$, 필드종료기호 및 레코드종료기호는 \$6 \$6\$6와 같은 임의의 부호를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레코드의 전반적 구조에서 마지막 데이터필드는 필드종료기호와 레코드종료기호를 중복해서 기술하는 대신에 레코드 종료기호만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는 등(국립중앙도서관, 1992. 레코드구조 -p. 1) ISO의 규격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갖고 있다.

2. 리 더

리더(leader)는 MARC구조가 바탕으로하고 있는 ISO 2709에서의 레코드레이블(record label)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각 서지레코드의 맨앞에 위치하여 레코드의 기계적 처리에 필요한 패러미터들을 제공하는 부분이다(ISO 2709, 1981. p. 1). 현재의 KORMARC 형식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나 보다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1 목록전거 MARC 구분부호의 신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MARC에는 KORMARC, USMARC, OCLCMARC, UTLAS MARC 등이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는 수정보완된 새로운 KORMARC도 사용될 것이 분명하다. 분담목록체제에서는 전술한 여러 가지 MARC레코드들이 동일한 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하며, MARC을 사용하는 도서관들이 증가할수록 여러 가지 변형된 로컬의 MARC 기준에 의해 제작된 레코드들이 들어오는 것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속정확한 MARC레코드의 처리를 위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은 MARC레코드의 제작에 어떤 MARC기준이 사용되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 사용이 유보되어 있는 리더/08부분에 목록전거 MARC구분부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제어번호의 일부로서 제어번호의 뒷부분에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부분을 신설하여 사용할 경우, 국내 도서관들은 변형된 MARC기준의 개발 즉시 국립중앙도서관에 그 문법을 포함한 상세정보를 보고하여 레코드 교환사용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2 연관레코드조건의 신설

어떤 종류의 도서에 있어서는 관련된 도서들의 서지정보가 없이는 충분한 서지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分立(An-

alytics)을 처리할 경우 그들의 基本著錄에 관한 기본식별정보(bii : basic identification information)를 76X-78X(연관저록)에 「In」으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기본저록의 MARC레코드가 이미 존재하고 있을 경우에는 불필요한 중복입력이 되며, 그 입력의 정확성, 포괄성, 그리고 기본저록정보의 수정보완시 일괄적인 레코드수정 등을 고려한다면 기본저록 MARC레코드의 제어번호를 사용하여 필요시마다 연계사용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Crawford, 1989. p. 38).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연관레코드조건필드의 신설이 필요하다. 연관레코드조건은 '리더/19'를 사용하며, bii(즉 기본표목과 서명, 기본표목과 통일서명, 표준기술보고서번호, 보고서번호 등)를 자체 레코드내에 포함하고 있는가 또는 관련레코드를 실제로 액세스해야 하는가의 여부를 표시하기 위한 한자리 문자코드로 b(관련레코드 불

필요)와 r(관련 레코드 필요)를 쓰도록 한다.

2.3 레코드상태의 보완

레코드상태(리더/05)는 해당레코드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 KORMARC의 설명은 주로 리더/17(입력수준)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을 중복하여 설명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따라서 사용설명 부분을 <표 1>과 같이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2.4 입력수준의 보완

이 입력수준(리더/17)은 레코드를 구성하는 서지정보 또는 내용지시기호 등의 수준을 완전성의 정도를 식별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KORMARC에서는 이 필드를 자료확인 및 미확인만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리더/05

<표 1> 레코드상태 부호의 기능

부호	처리내용	기능 설명
n	추가	해당레코드가 새로 추가되어야 할 레코드임
c	대체	해당레코드가 기존의 동일한 레코드내의 일부분에 추가·수정을 가한 것임으로 기존레코드를 해당레코드로 대체시켜야 함
d	삭제	해당레코드는 삭제되어야 할 레코드임
a	대체	해당레코드는 기존 레코드의 입력수준(리더/17=1)을 완전목록수준(리더/17=b)으로 올린 레코드로서 기존레코드를 해당레코드로 대체시켜야 함
p	대체	해당레코드는 기존의 CIP 수준레코드(리더/17=3)을 완전목록수준(리더/17=b)로 올린 레코드로서 기존레코드를 해당 레코드로 대체시켜야 함

=p와 같이 레코드상태에는 나와 있는 CIP 등의 정보조차도 구분할 수 없게 되어 있다(국립중앙도서관, 1984. p. 6).

앞으로 생산되는 서지레코드들의 다양한 수준과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특히 자동화가 본격화될 경우 발행할 수많은 소급변환레코드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가서지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표 2>와 같은 USMARC 수준의 입력수준 식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거나 실용적인 면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b-완전수준, 1-불완전수준, 2-최소수준, 3-발행전수준」 정도의 식별은 필수적이라 사료된다. 특히 최소수준은 국내도서의 신속한 소급입력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국가서지기구인 국립중앙도서관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그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2.5 레코드유형의 수정

레코드유형(리더/06) 부분에서는 일부부호의 의미를 「i-언어관계 음향자료」를 「i-녹음자료 : 음악 이외」와 같이 보다 명확히 전달할

필요성이 있으며, 부호 h-마이크로형태자료의 경우는 삭제하여야 타당하다. 왜냐하면 마이크로형태자료는 레코드 유형의 분류기준이 아니라 대부분 레코드 형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축적방식의 하나이기 때문이다(Library of Congress, 1988. Introduction p. 2).

실제로 마이크로형태 사항은 008/23(매체형태)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는 문제로서 리더/06에서는 제외시켜야 한다. 또한 부호 1(컴퓨터파일)과 n(입체자료 및 실물)은 국내 사정에서 특별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코드표준화를 위하여 m과 r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6 목록기술형식의 수정보완

KORMARC의 목록기술형식(리더/18)은 ISBD에만 초점을 맞추어 「b-완전한 ISBD형식 ; n-ISBD형식이 아닌것 ; i-부분적으로만 ISBD형식인 것」으로 되어 있다(국립중앙도서관, 1984. p. 6).

그러나 국내실정을 고려한다면 KCR3과 함께

<표 2> USMARC의 입력수준 부호

부호	지시내용	비고
b	완전수준	소급변환에서 주로 발생 작성도중에 있는 레코드
1	완전수준, 자료미확인	
5	불완전수준	
7	최소수준	
8	출판전수준	
u	미상	
z	비적용	

현실적으로 많이 채택하고 있는 AACR2 등을 식별하기 위한 코드의 보완이 필요하다. 국내레코드 작성시 非ISBD 형식이 다수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디폴트인 b를 ISBD 형식이 아닌 것으로 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또한 리더/18=b인 경우 008/32(목록전거)와 040 ▼e의 내용을 이용하여 사용된 규칙명을 추적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3. 제어필드

3.1 제어번호

제어번호의 목적은 특정 시스템내에서 특정 레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키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Library of Congress, 1988. 001-p. 1). 따라서 이 필드를 KORMARC 제어번호로만 해석해서는 안되며, 레코드 제작, 사용 혹은 보급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된 개념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어번호는 MARC레코드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내에서 자신의 주소를 표시해 주는 유일키가 되어야 한다는 개념과 협력망에서와 같이 他시스템간에 레코드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LCCN과 같은 정보를 없애지 않고 일정한 장소에 저장하여 사용하도록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KORMARC 레코드를 입수한 기관에서는 필요에 따라 기존의 제어번호를 010(미국국회도서관 제어번호), 012(국립중앙도서관 제어번호) 및 035(협력기관 제어번호) 중 해당필드로 이동시키고 자신의 제어번호를 이 필드에

수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KORMARC 레코드의 001필드와 012필드 양쪽에 동일한 국립중앙도서관 제어번호를 넣어 배포한다면 로컬기관은 001의 제어번호를 012로 옮길 필요없이 로컬기관의 제어번호만 001필드에 넣음으로써 끝낼 수 있다.

또한 KORMARC에서는 010필드에 국립중앙도서관의 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나, 등록번호는 서지정보가 아닌 각 도서관의 내부분체로서 로컬 정보처리에 속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현행 010 사용방식은 서지정보와 날권정보의 구분을 애매하게 만드는 부분으로서 등록번호나 소장사항 등은 단행본, 연속간행물 등 모두 별도의 화일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하다면 별도의 형식을 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McAllister, 1979; McPherson, 1982). 따라서 010 필드는 USMARC이나 UKMARC에서와 같이 미국국회도서관 제어번호용으로 바꾸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3.2 레코드품질관리 관련필드

분담목록체제에서는 다수의 도서관들이 데이터의 생산, 수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때 등록된 레코드가 모두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철자의 오류, 분류나 목록기술규칙 적용에 있어서의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권호의 출판, 출판년도의 확장, 새로운 데이터의 추가 등에 따라 이미 등록된 레코드의 수정작업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의 質에 책임을 부여하기 위하

여 데이터의 작성기관, 품질확인 여부, 입력기관, 수정기관 등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의 변경이 처리중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데이터 변동일자에 대한 정보를 필수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USMARC의 경우 입력수준(리더/17), 수정레코드(008/38) 등에서 레코드 자체의 품질을 확인하고 있으며, 목록정보(008/39), 목록작성기관(040), 검증부호(042) 등을 통하여 품질관리에 책임을 갖고 있는 기관이나 프로그램을 알려주고, 최종처리일시(005)로서 레코드의 최신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KORMARC의 경우 이 부분이 상당히 미비한 실정으로 다음과 같은 신설·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입력수준은 전술함).

3.2.1 수정레코드의 신설

수정레코드(008/28)는 레코드 제작시 입력되어야 할 정보를 단축하였거나, 기계가독형으로의 변환이 불가능한 특수문자, 수학기호, 부호 등을 생략하였거나, 서지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부를 기계적 제한으로 인하여 한글로 풀어서 입력한 경우에 사용한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여줌으로써 레코드가 완벽하지 못하고 일부 변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세울 수 있다.

3.2.2 최종처리일시필드의 신설

레코드는 빈번하게 수정·보완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그 레코드의 수정사항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 역할은 최종변동일시로 수행시키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정확하

다. 최종처리일시(005) 필드는 16자리로 구성하여 첫 8자리는 yyyyymmdd(4-년도, 2-월, 2-일), 다음 8자리는 hhmmss.f(2-시간, 2-분, 2-초, 2-1/10초)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시간은 24시간 방식(00-23)을 사용하여야 한다. 최초로 기계가독형태로 입력된 날짜는 008/00-05 필드에 수록되며 절대로 수정되어서는 안된다.

3.2.3 목록작성기관필드의 보완

목록작성기관(040)에는 도서관명과 필요한 경우 2자 띄어 청구기호를 부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립중앙도서관, 1984. pp. 34-35). 그러나 목록작성에 참여한 기관의 역할과 기술 목록형식(리더/18)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관련 정보를 정확히 알려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제1, 2지시기호-공백

식별기호

▼a-최초 목록작성기관

▼c-입력기관

▼d-수정기관(반복)

▼e-기술규칙

이 필드는 최초 목록작성기관, KORMARC 내용지시기호 부여기관, 기계가독형 레코드로의 변환기관, 기계가독형 레코드의 수정기관의 심볼이나 명칭을 수록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레코드의 수정에는 목록정보, 내용지시기호, 문자수정 등 소장기관심볼의 추가를 제외한 모든 수정들이 포함되며, 반복되어 수정될 경우

▼d를 반복하여 수정기관을 기재한다. 다만 동일기관에 의해 연속적으로 수정될 경우 하나의 ▼d만을 사용한다.

그러나 동일기관이 다른 역할을 수행했을 때, 즉 입력기관이 수정을 한 경우 등은 각기의 역할식별기호를 모두 사용한다. 또한 이 필드에는 편목에 사용한 언어코드와 리더/18(기술목록형식)에서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목록 기술규칙을 사용했을 경우 그 규칙의 명칭을 ▼e에 기술한다.

3.2.4 검증부호필드의 신설

레코드의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입력된 레코드의 모든 표목들을 관련된 전자화일을 이용하여 체크해 볼 필요가 있으며, 특별히 지정된 확인기관(authenticating agency)을 통하여 품질관리를 실시했을 경우 이를 표시할 수 있는 檢證符號(042)필드가 필요하다. 신설되는 이 필드에서 사용할 검증부호(authentication code)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3.3 링크필드의 신설

최근에 이르러 출판보급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하나 이상의 매체나 형식특성을 갖는 자료와 결합 혹은 관련되어 보급되는 자료들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요즘 많은 마이크로컴퓨터 소프트웨어 패키지들이 수백페이지짜리 매뉴얼과 함께 공급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여러 권의 책들과 같이 공급되기도 할 뿐 아니라 그 책들 중에는 단행본으로 별도구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어느 쪽이라도 수용할 수 있도록 MARC 기준을 개방해 줄 필요가 있다(Crawford, 1989. p. 58).

보다 복잡한 형태를 띄고 있는 출판계의 현실을 볼 때 형태가 다른 자료들끼리 합쳐져 있는 자료들을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는 연계필드가 반드시 필요하며 다음과 같이 링크필드(006)를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00-자료형태 부호

- a-도서
- c-인쇄된 악보
- d-필사본 악보
- e-인쇄된 지도
- f-필사본 지도
- g-영사자료
- i-녹음자료 : 음악 이외
- j-녹음자료 : 음악
- k-평면비영사 그래픽
- m-컴퓨터화일
- o-키트
- p-혼합자료
- r-입체자료 및 실물
- s-연속간행물
- t-필사본 언어자료

01-17-상기 각 자료의 카테고리별로 정의된 008/18-34의 부호와 동일하게 사용

이 필드는 레코드가 지시하는 자료내에 자료 형태가 다른 부분을 포함하고 있거나 딸림자료가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레코드내에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필드는 지시기호나 식별기호를 사용하지 않으며 특정 데이터요소들은 위치에 따라 정의되어 있다. 또한 이 필드는 18자리(00-17)로 구성되며 나무구조(generic-tree structure)로서 첫번째 자리(00)에서 구분된 자료형태에 따라 008/18-34의 기준을 01-17에 적용한다.

3.4 형태기술필드의 신설

형태기술필드(007)는 008필드와 달리 자료의 判讀 및 처리에 필요한 자료의 형태, 크기, 규격, 상태 및 사용기기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수록되는 필드이다. 단행본의 경우에는 마이크로형태(부호=h)일 경우만 사용하고 있으나, 기기를 사용하여야만 판독할 수 있는 형태의 비책자자료가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있으며 이의 기술과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3.5 부호화정보필드의 수정보완

부호화정보필드(008)는 데이터관리 및 검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레코드 전반 및 서지적인 특성에 대한 부호화정보를 40자의 고정된 길이내에 표현하고 있다. KORMARC의 기초가 되고 있는 USMARC의 경우 00-17과 35-39를 모든 형식에서 사용하는 부분으로 정의하고, 18-34를 각 형식의 특수한 경우를 반영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수의 형식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정보는 동일한 위치에 배열하고 있다(Library of Congress,

1988. 008-p. 2). 이는 부호화정보필드의 목적에 비추어 매우 적절한 기준으로 판단된다. KORMARC의 단행본형식은 이를 약간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수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내용형식(24-27)을 24-25로 줄이고 26-27을 대학간행물부호로 사용하고 있다.
- 정부간행물부호(28)를 공백으로 하고 있다.
- 수정레코드(38)는 채택하지 않고(949 변형문자표시코드에서 정의하고 있다), 목록전거(39)의 위치를 32(USMARC에서는 공백)로 옮긴 후 그 두자리(38-39)를 한국정부기관명부호로 사용하고 있다.

이 수정사항을 분석하면 대학간행물부호(실제로는 한국대학명부호라 하는 것이 옳다)와 한국정부기관명부호를 수용하기 위하여 내용형식을 줄이고, 목록전거의 위치를 옮기고, 수정레코드필드를 의외의 자리 949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레코드의 품질관리에 필수적인 수정레코드가 부호화정보필드에서 사라졌으며, 구조적으로 보았을 때 목록전거, 대학간행물부호와 같이 모든 형식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정보가 특정 형식을 위해 할당된 부분(18-34)에 배정되고 있다.

과거와 같이 KORMARC이 단행본용 형식만 존재할 경우에는 이 부분의 문제점이 간과될 수 있겠으나, 연속간행물, 비책자자료 등 여러 형식들이 출현할 경우 공통의 정보는 그룹화되고 동일한 위치에 존재한다는 원칙에 의

해 보장될 수 있는 정보처리의 효율성과 혼란의 방지효과를 잃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간행한 대학명과 정부기관명을 굳이 008에서 구분해야 한다는 것에 의문이 있다. 그러나 이 정보가 008에서 필요하다면 모든 필드를 USMARC과 동일하게 정의하고, 각 형식마다 공통적으로 공백인 32자

수 위치에 대학간행물, 정부간행물 등의 발행처유형을 식별할 수 있는 부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정의한 후, 뒷부분의 적절한 위치에서 대학명, 정부기관명 등을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사료된다. 제안안과 실제의 채택안을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제안안과 채택안의 비교

정 보 내 용	제안안		채택안	
	위치	자수	위치	자수
(전체)				
입력일자	0-5	6	0-5	6
발행년 유형	6	1	6	1
발행년1	7-10	4	7-10	4
발행년2	11-14	4	11-14	4
발행국명	15-17	3	15-17	3
발행처유형	32	1		
목록정보			32	1
언어	35-37	3	35-37	3
수정레코드	38	1		
한국정부기관명부호			38-39	2
목록정보	39	1		
(단행본)				
삽도	18-21	4	18-21	4
이용대상자 수준	22	1	22	1
자료식별표시	23	1	23	1
내용형식	24-27	4	24-25	2
한국대학명부호			26-27	2
공백	28	1		
수정레코드			28	1
회의간행물	29	1	29	1
기념논문집	30	1	30	1
색인	31	1	31	1
문학형식	33	1	33	1
전기	34	1	34	1

3.5.1 이용대상자 수준의 개정

KORMARC에서는 이용대상자 수준을 지식 수준부호(008/22)라 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국립중앙도서관, 1984. p. 20).

- j-아동도서
- k-교과서
- o-고서
- s-비본
- b-불온도서
- r-참고도서
- m-석사논문
- d-박사논문

이 필드의 목적은 자료가 대상으로 하거나 자료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이용자의 연령, 학년 등을 표지하는 데 있음을 필드명칭에서 나타내고 있다. 물론 넓은 범위에서 아동도서(j), 석박사논문(m, d)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이며, 불온도서(b)는 대상을 지시하는 점에 있어서 약간의 관련이 있다고 할 수도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용 및 배포의 제한사항에 속한다 하겠다. 만약 이용 및 배포 제한사항을 여기에 포함시킬 경우 불온도서만이 아니라 기밀이 해제되지 않은 공문서, 연구기술보고서 등도 포함되어야 하며, 제한의 정도, 이유, 부여기관, 해제시기 및 기타 관련사항 등의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더우기 교과서(k), 고서(o), 참고도서(r)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을 ① 이용제한, ② 지식수준 또는 이용대상자 수준으로 분리하여 명확히 하고, 교과서

(k), 고서(o), 참고도서(r) 등은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이용제한의 경우는 506의 사용제한주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식수준의 경우 008/22에서는 아동도서(j)인가 아닌가만 확인시키고 521(이용대상자 주기)에서 이용자의 연령, 학년 등을 세밀히 나타내는 방식을 채택한 USMARC과 학습자료/일반자료에 대한 구분과 함께 그 이용대상 그룹을 학제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10개의 코드를 사용하는 IFLA의 ITAC(International Target Audience Code)방식(IFLA, 1977) 중 하나를 채택하여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

前者를 채택했을 경우의 008/22와 521을 보면 다음과 같다.

008/22 이용대상자 수준 : 이 필드는 입력되는 자료의 지식수준을 나타낸다.

- b-일반 이용자용
- j-아동용

521 이용대상자 주기 (반복) : 필드 521은 이용대상의 수준에 대한 주기를 기술한다. 지시기호와 식별기호의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제1, 2지시기호-공백
식별기호

▼a-이용대상자(반복) [국민학생용, 미입학아동용 등]

▼6-링크

〈표 4〉 ITAC 부호의 내용

자료종류	부호	정 의
학습자료	c	Suitable as text for primary school pupils
	g	Suitable as text for secondary school pupils
	m	Suitable as text for students in higher education
	p	Suitable as text for post - graduate students and researchers
	z	Intended for special group of users
일반자료	b	Suitable for pre - school readers
	j	Suitable for junior readers
	k	Suitable for young adult readers
	r	Suitable for adult readers (primary for recreation and/or entertainment)
	v	Scholarly work suitable for adult readers

ITAC의 분류내용을 보면 〈표 4〉와 같다.

3.5.2 자료식별표시의 개정

연속간행물 및 비책자자료에 관한 형식이 제정됨에 따라 리더/06(레코드 형태)에서부터 나무구조방식으로 분리되는 단행본형식에서 자료형태부호(008/23)의 a(地球儀)-Z(기타)와 같은 내용은 전개의 논리에 어긋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 필드는 아래와 같이 「레코드매체」(medium of the item)에 관한 정보를 기술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필드명칭도 「자료식별표시」(008/23)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b - 해당없음

a - 마이크로필름

b - 마이크로펄스

c - 마이크로오팅

d - 대형자료

f - 점자

r - 복제

3.6 사용문자셋트의 신설

국내 컴퓨터시장에서의 코드체계 난립에 따라 데이터 작성에 사용가능한 문자셋트의 종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최석두 등, 1991).

- OCLC MARC, USMARC에서의 다운로드 -CJK -REACC코드
- Japan MARC -JIS코드
- China MARC -CCCII코드(대만)
- 중국 MARC -GB2312 -80코드
- 국내 -KS C 5601(2바이트 완성형코드) -7비트 완성형코드

- 8비트 조합형코드(2바이트 조합형 코드)(특히 한자인 경우 컴퓨터회사마다 다르다)
- N 바이트코드
- IBM코드
- EBCDIC코드
- 국립중앙도서관 확장코드

최근에는 「KS C 5657-1991 정보교환용 부호 확장세트」가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다양한 문자셋트로 작성된 데이터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용문자셋트(066)의 종류를 시스템에 정확히 알려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USMARC의 경우를 보면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ASCII와 非ANSEL 이외의 문자셋트들은 식별기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ANSI Z39. 47, 1985), ISO 2022(ISO 2022, 1986)에 입각한 Basic Cyrillic (28Hex, 4EHex), Extended Cyrillic (29Hex, 51Hex) 등을 식별해 내고 있다. 특히 이러한 방식은 표준 ASCII코드로 작성된 데이터내에 Extended Cyrillic 등의 일부 비표준자료가 포함되어 있어도 식별이 가능한 방식이다 (Library of Congress, 1987. pp. 12-16).

그러나 이 방법으로 데이터를 작성하고 유통시키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방식이므로 좀 더 단순화된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KORMARC의 사용문자셋트필드(066)에서는 아래와 같이 레코드작성에 사용된 문자셋트가 국가표준으로 지정된 정보교환용 부호 및 확장 부호가 아닌 경우 그 문자셋트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수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생각된다. 따라서 KORMARC에서의 949 필드(변형문자표시코드)는 폐기해도 좋을 것이다.

제1, 2지시기호-공백 식별기호

▼a-문자세트 부호(비국가표준)

[066 bb▼aNCL (국립중앙도서관 확장문자세트)]

물론 이 방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문자셋트 표시부호를 결정하여야 하며, 국제교환을 위해서는 문자셋트에 대한 도큐멘테이션을 함께 제공하거나 USMARC에서와 같이 ISO 2022에 입각한 표현방식으로 이 필드를 변환하여야만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제어필드중에서 개정해야 할 내용을 나열해 보았다. 그러나 전술한 내용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여러 제어필드가 추가로 신설되거나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 등록번호(010)는 미국국회도서관제어번호(010)로 대체
- 미국국회도서관제어번호(010)와의 링크 필드(011)신설
- 국립중앙도서관제어번호(012)와의 링크 필드(013)신설
- 저작권등록번호(017)신설
- ISSN(023)은 ISSN(022)으로 이동
- 표준보고서번호(027)신설
- 협력기관제어번호(035)일부수정
- 목록작성기관(040)일부수정
- 언어(041)일부수정

- 협력기관 소장사항표시(049)신설
- 미국국회도서관 분류기호(050)일부수정
- 보고서번호(088)신설

4. 저자명

4.1 개인명 관련필드의 수정

KORMARC에서는 개인명 관련필드인 표시기호 100, 400, 600, 700에서의 개인명 표기시 성명의 표기를 구분하여 「▼a姓, ▼h名」으로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서양식 인명표기인 경우 첨마(.)를 사용하는 것은 도치의 의미이므로 동양인명의 동양식 표기인 경우에는 도치표시가 없어야 마땅하다. 또한 동양인명의 경우에는 姓과 名이 검색의 기본요소가 되므로 이를 별도로 구분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목록의 관례에 따라 姓과 名이 서브필드 ▼a에 直順으로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서양인명의 경우도 검색의 기본요소를 도치시켜 서브필드 ▼a에 기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현재와 같이 성명을 구분할 경우 입력하기 어렵고, 입력된 데이터의 해석 및 인쇄가 그 만큼 더 어려워진다. 특히 자동전거통계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전거화일과의 관계가 복잡해진다. 따라서 ▼h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KORMARC은 개인명 관련필드의 제2지시기호를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있다.

- 0-한국인 또는 한국어의 한글표기
- 1-외국인 또는 외국어의 한글표기
- 2-로마자표기

위에서 로마자 표기는 코드로서 알 수 있으므로 무의미하며, 제2지시기호가 韓國人과 外國人을 식별하기 위한 것이라면 로마자 표기가 있으므로 의미가 없다. 그리고 한국인과 외국인을 왜 식별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제2지시기호는 공백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2 단체명/회의명 관련필드의 수정

KORMARC에서는 단체명/회의명 관련필드인 표시기호 100, 400, 600, 700에서의 제1, 2지시기호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도록 정의하고 있다(국립중앙도서관, 1984. pp. 51-53).

제1지시기호-단체명

- 0-성명으로 시작되는 단체명(한국의 경우는 성명에 관계되는 명칭(예=호, 성뿐인 것)으로 시작되는 단체명을 다 포함하며, 서양의 경우는 성을 전치(轉置=Inverted)시켜 시작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 1-지역명 또는 지역명을 앞세운 단체명
- 2-단체명(직접명)

제1지시기호-회의명 또는 집회명

- 0-서명으로 시작되는 회의명 또는 집회명
- 1-지역명 또는 지역명이 앞선 회의명 또는 집회명
- 2-회의명 또는 집회명

제2지시기호-단체명

- 0-한국 단체명 또는 한국어의 한글표기

- 1-외국 단체명 또는 외국어의 한글표기
- 3-로마자 표기

제2지시기호-회의명 또는 집회명

- 0-한국 단체명 또는 한국어의 한글표기
- 1-외국 단체명 또는 외국어의 한글표기
- 3-로마자 표기

위의 정의에서 제1지시기호의 정보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기본요소(단체명, 회의명 또는 집회명) 전체가 전거통제를 받게 되며, 단체명, 회의명 또는 집회명의 접두어인 「성명, 지역명」으로 전거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1지시기호는 공백으로 정의하는 것이 옳으며, 제2지시기호도 개인명 관련필드의 제2지시기호 변경과 같은 이유로 공백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5. 서 명

5.1 배열에서 제외되는 문자

KORMARC에서는 표시기호 245의 제2지시기호를 「0-9(서명 첫머리에서 제외되는 문자수)」로 정의하고 관칭의 처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관칭은 원칙적으로 괄호에 묶어 입력한다. 목록기술상 서명의 관칭으로서 기술되어 있으나 배열상 무시되는 것은 목록에 기술된 대로 표지하되 제2지시자에서는 삭제되는 문자수를 표지하도록 한다. 서명의 관칭은 9

사이내인 경우로 하고 10자 이상인 경우에는 관제로 한다. 서명의 관제는 표시자 500 일반주기에 「관제」란 표출어를 앞세워 표지한다(국립중앙도서관, 1984. p. 57).

USMARC의 경우 배열에서 제외되는 문자는 서명의 첫머리에 오는 정관사 및 부정관사로 정의하고 있다(Library of Congress, 1988. 245-p. 2). 그러나 동양언어는 관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배열에서 제외되는 문자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배열에서 제외되는 문자가 있다 하더라도 앞에 와서는 안되는 것이다. 또한 관칭과 관제를 문자수로 정한다는 것도 논리적이지 않다. 서명과 관제가 분리되어 있어 처리가 불편하며, 「0-9」字란 한글인지 영문인지, 한글인 경우 스페이스는 1자인지, 한글/영문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상당히 애매하다.

「서명 첫머리에서 제외되는 문자수」가 아니라 「서양서의 서명 첫머리에서 제외되는 문자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130, 630, 730의 제1지시기호, 240의 제2지시기호에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서양서 이외의 자료는 해당 제1지시기호 혹은 제2지시기호의 값이 언제나 0이 되며, 「冠題와 冠稱」은 관제/관칭 어느 쪽도 길이에 관계없이 괄호로 묶어 처리하면 애매함 없이 처리될 것이다.

5.2 통일서명의 신설

상이한 서명으로 제작된 자료를 목록상 한 자리에 모으기 위하여 특정 서명을 통일서명으

로 삼아 기술할 필드가 필요하다. 기본표목으로 사용된 통일서명은 표시기호 130을 사용하고 기타 통일서명은 240에 기술해야 할 것이다.

6. 판 차

단행본 지도첩의 경우는 축적과 도법, 경위도표시가 중요한 식별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수치데이터사항(255)를 신설하여 축적과 도법, 경위도 등 地圖資料와 관련된 수치데이터를 기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CIP프로그램이 시행되는 경우 자료의 출판예정일자를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즉, CIP프로그램의 일부로서 목록이 작성된 저작의 레코드에 사용하기 위하여 출판예정일자(263)의 신설이 필요할 것이다. 이외에 출판사나 배포처의 명칭과 주소를 포함한 완전한 정보를 기술할 필드로 입수처주소(265)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7. 형태기술

KORMARC에서는 단행본용 가격필드(350)를 상세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국립중앙도서관, 1984. pp. 66-68), 020필드(ISBN)에서는 「...단, 이용 가능사항 또는 정가는 350필드에 자동 이송되도록 한다」 (국립중앙도서관, 1984, p. 32)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가격이란 각 기관마다 다르며 같은 자료라도 구입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지데이터내의 가격은 참조가격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각 기관은 자관 데

이타에 대한 자산가격을 가져야 하지만 국가서지형식으로서의 KORMARC가 로컬의 자산가격까지 수용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로컬의 가격사항은 로컬정보로서 로컬정보필드에 기술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료의 참조가격은 ISBN(020)의 ▼c에 기술함으로써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가격필드(350)는 폐기해도 좋을 것이다.

8. 총서명

KORMARC의 총서명사항과 총서명부출기입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국립중앙도서관, 1984. pp. 69-72, 93-95).

- 400 총서명-개인명/서명(부출기입)
- 410 총서명-단체명/서명(부출기입)
- 411 총서명-회의명 또는 집회명/서명(부출기입)
- 440 총서명-서명(부출기입)
- 490 부출되지 않거나 변형되어 부출되는 총서명
- 800 총서명부출기입-개인명/서명
- 810 총서명부출기입-단체명/서명
- 811 총서명부출기입-회의명 또는 집회명/서명
- 840 총서명부출기입-서명

그러나 총서명의 저자/서명부분에서 저자부분이 필드 100, 110, 111의 어디에서 참조되었는가를 구분하는 것은 번거로우며 별로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저자부분으로 전거통제를 받을 것이 아니라 총서명 전체로 전거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서명 및 총서명부출표목은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된다.

440 총서명/부출표목

490 총서명/부출되지 않거나 변형되어 부출되는 총서명

830 총서명부출표목

또한 필드 4XX와 8XX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즉 490을 제외한 4XX가 나타나면 대응되는 8XX가 나타날 필요가 없다. 현행 KORMARC과 같이 410이나 440이 나타날 때 810과 840이 나타나는 것은 잘못이다. 필드 490이 나타날 때 비로소 8XX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490은 記述部이며 그외의 4XX와 8XX는 標目部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① KBS TV 공개대학씨리즈와 ② 케이비에스 티브이 공개대학씨리즈 양쪽을 다 검색하도록 하고 싶으면 ①을 440에 기술함과 동시에 전거화일의 전거가 되며, ②는 서지데이터에서가 아니라 전거화일에서 전거인 ①의 변형(보라 참조)으로 기술되어야 하는 것이다.

490은 부출되지 않거나 변형되어 부출되는 총서명을 기술한다. 즉 이 필드는 총서명이 기록으로서만 기술되는 요소를 기술할 수 있으므로 총서명이 그 자체로서 표목형식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출판물에 나타난 총서명을 이 필드에 기술하고 변형되어 부출되는 총서명을 총서부출표목필드 830에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9. 주 기

註記와 관련하여 이용대상자 주기(521), 복제주기(533), 연관저록설명주기(580)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용대상자 주기(008/22(이용대상자수준)와 대응되어 기술되면 정보서비스업무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원자료의 복제사항을 기술하는 복제주기는 동일한 자료가 다른 물리적 형태로 이용가능할 때 이를 이용자에게 알려 줄 수 있어 편리할 것이다. 또한 연관저록설명주기와 같이 다른 레코드와의 복합적인 관계를 자유스런 형식의 주기로 표현할 수 있는 필드가 필요하다. 연관저록 필드(765-787)에 기술된 자료에 종속된 요소인 경우에만 기술하며, 이 필드에 주기를 기술하는 경우 관련자료를 반드시 765-787필드에 기술해야 한다.

때로는 내용주기(505)의 내용을 부출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며 이 때에는 내용주기의 저자/서명 등을 「부출표목-개인명필드」(700)의 식별기호 ▼a(개인명)-▼t(저작명)에 해당사항을 기술하여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10. 주제명부출표목

6XX는 전거통제를 받는 필드群이므로 비통제명표목을 기술할 수 없다. 우리나라와 같이 한글로 된 통제도구가 없는 경우 비통제표목도 6XX에 기술할 수 밖에 없으나 차후 통제도구가 개발되면 큰 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비통제주제명 필드(653)을 신설하여 통제어휘집이나 전거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주제

어 및 키워드를 작성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통계수단이 있다 하더라도 자연어색인방법을 병용하는 경우에 이 필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11. 연관저록

KORMARC에서는 연관저록 관련필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으며 이 필드들의 사용을 보유하고 있다(국립중앙도서관, 1984. pp. 73-75).

- 451 보유관의 연관표시
- 452 모체적 간행물의 연관표시
- 465 다른 판본과의 연관표시(동일출판형식인 것)
- 466 다른 형태의 판본과의 연관표시(출판형식이 서로 다른 것)
- 468 번역되어 출판된 자료와의 연관표시
- 474 분립기입의 연관표시

이 聯關著錄부분은 리더/19(연관레코드 조건), 580(연관저록 설명주기)와 함께 동일 데이터베이스내에 있는 관련저작의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 연대적 관계 및 기타 관계를 효과적으로 링크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레코드링크필드이다. 이 필드는 보유할 것이 아니라 현행 KORMARC을 다음과 같이 451-474 필드에서 76X-79X 필드로 옮겨야 할 뿐만 아니라 확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 765 원어저록 [수평관계]
- 767 번역저록 [수평관계]

- 770 보유관 및 특별호 저록 [수직관계]
- 772 모체레코드 저록 [수직관계]
- 773 기본자료저록 [수직관계]
- 775 이판저록 [수평관계]
- 776 기타형식저록 [수평관계]
- 780 선행저록 [연대관계]
- 785 후속저록 [연대관계]
- 787 비특정적 관계 저록 [기타관계]

12. 참조사항

KORMARC에서는 참조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국립중앙도서관, 1984. pp. 96-99).

- 900 참조사항-개인명
- 910 참조사항-단체명
- 911 참조사항-회의명 또는 집회명
- 945 참조사항-서명

그러나 이 참조사항은 모두 典據데이터로 처리해야 할 사항이므로 폐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13. 비표준부호데이터필드 및 링크

각 항목이 로마자와 한글이 대응되는 자료인 경우 한글서지사항 혹은 로마자서지사항만을 각각 구별하고 싶을 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어렵다. 또한 장래 그래픽문자 혹은 표준코드에서 처리할 수 없는 문자를 처리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다. 예로 단행본형식에 속

〈그림 1〉 비표준부호데이터필드 및 링크의 사용례

[리더, 부호화정보필드 및 일부제어필드는 생략함]

보고서번호	088	▼aKSRI-91-52-IR
주제분야	072	▼a0502
기본개인명	100	10▼6880-04▼a박신석
서명저자사항	245	10▼6880-03▼a광기술을 이용한 보고서 관리시스템구축 연구
출판사항	260	▼6880-02▼c1991. 3
대조사항	300	▼a106p
배포구분	506	▼a01
보고서종류	513	▼6880-09▼a1차년도 보고서
초록, 해제	520	▼6880-10▼a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보고서의 출판, 저장, 이용, 보급 전공정의 완전한 자동화 시스템 구축이다. 연구보고서, 논문 그리고 기타의 연구결과로서 발행하는 출판물들은 차후 연구활동 참고용으로 뿐만 아니라 연구활동 기록으로서, 또 이를 통한 연구활동 경제성 분석과 연구소 정책수립 에의 기본자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비통제주제어	653	▼6880-11▼a광기술▼a전문데이터베이스 ▼a하이퍼텍스트 ▼a표준화▼a멀티미디어▼a기술보고서
부출개인명	700	10▼6880-05▼a이상현.
부출개인명	700	10▼6880-06▼a김익철.
부출개인명	700	10▼6880-07▼a김혜진.
부출개인명	700	10▼6880-08▼a김충렬.
부출단체명	710	10▼6880-01▼a기술정보-SRD실.
다른문자표기	880	10▼6710-01▼bOffice of Tech Info-SRD
다른문자표기	880	▼6260-02▼c1991, Mar
다른문자표기	880	10▼6245-03▼aStudy on Construction of Technical Reports Manage- ment System Using Optical Technology
다른문자표기	880	10▼6100-04▼aPak, Shin Sok
다른문자표기	880	10▼6700-05▼aLee, Sang Hun
다른문자표기	880	10▼6700-06▼aKim, Ic Cheol
다른문자표기	880	10▼6700-07▼aKim, Hye Jin
다른문자표기	880	10▼6700-08▼aKim, Chung Ryul
다른문자표기	880	▼6513-09▼alst, Report
다른문자표기	880	▼6520-10▼aThis project is aimed at building a computerized man- agement system which integrates publishing, storage, usage, and distribution of technical reports. Various kinds of printed materials resulting from research activities(e. g., reports, papers, memoranda, and so on) are valued not only as records and reference for future researches but also as funda- mental data for policy-making and analyzing the adequacy of projects of research institution. Currently, such technical reports also serve as basic media for information flow within Korea.
다른문자표기	880	▼6653-11▼aOptical Technology▼aHypertext ▼aImage Database▼aTechnical Report▼aAutomatic Indexing▼aMultimedia

하는 기술보고서의 경우 국문서지 요약정보와 국제교환을 위한 영문서지 요약정보를 워크시트는 동일한 필드를 두 가지 언어로 표현한 것 뿐이므로 정보교환시 두 가지 정보를 하나의 서지레코드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국문서지레코드와 영문서지레코드를 분리교환할 경우에도 각각의 레코드로 MARC로서의 완전성을 가져야 한다.

이 때 비표준부호데이터필드(880)와 링크(식별기호 ▼6)를 사용하면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국문서지정보와 영문서지정보가 대응되는 자료인 경우, 비표준부호데이터필드와 링크의 사용례를 들면 <그림 1>과 같다(과학기술처, 1992, p. 48).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입력이 명쾌해지며 국문서지정보와 영문서지정보를 분리하여 출력하기도 쉽다.

14. 표시상수

표시상수(display constant)란 MARC레코드의 서지데이터에는 포함되지 않는 문자열이지만 화면이나 종이에 출력될 때 각 필드나 서브필드의 데이터 앞에 표출어로서 삽입하여 인쇄하고자 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기관과 시스템에 따라 표출어의 표현방법이 달라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는 점, 표출어가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이 표출어를 서지데이터와 구별할 필요가 없어 처리에 편리하다는 점, 그 만큼 입력량이 줄어든다는 점 등의 이유로 여러 MARC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KORMARC에서는 각종 표출어를 모두 서지데이터의 일부로서 기술하도록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표출어를 데이터의 일부로 기술하면 동일한 서지데이터의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다른 표출어형식을 사용하는 기관에서는 처리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따라서 표시상수를 필요로 하는 필드와 필요로 하지 않는 필드를 구분하여 명확하게 정의해 주지 않으면 데이터의 입력과 처리에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표출어를 데이터와 함께 기술해야 하는 필드는 제외하고 표출어를 표시상수로 기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필드의 종류와 표시상수로서 사용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표출어의 내용을 보면 <표 5>과 같다. 표시상수는 로컬의 문제이므로 로컬기관은 어떤 표시상수라도 임의로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III. 맺는말

본고에서는 현행 KORMARC형식(단행본)에서 불가피하게 개정·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원칙적이고 논리적인 측면에서 그 타당성을 논술했다. 그러나 지면관계로 각 지시기호 및 식별기호의 개정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 부분의 개정내용은 연구보고서 「이두영 등.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KORM-ARC)에 관한 연구-단행본용 포맷-.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991)」을 참조하기 바란다. 차후 비책자자료형식, 연속간행물형식, 古書形式과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典據形式과 소장정보형식이 제정되면 필드 및 식별기호를 포함하여

〈표 5〉 표시상수의 예

표시기호 및 내용	표시상수의 예
020 국제표준도서번호	ISBN ISBN(비사용), ISBN(Invalid) - - - [번호중간의 하이픈]
022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ISSN ISSN(틀림), ISSN(Incorrect) ISSN(취소), ISSN(Cancelled)
056 한국십진분류기호	KDC :
082 듀이십진분류기호	DDC :
086 정부문서분류번호	정부문서분류번호 :
505 내용주기	
제1지시기호 0	내용 : , Contents :
제1지시기호 1	불완전내용 : , Incomplete contents :
제1지시기호 2	부분내용 : , Partial contents :
520 초록 또는 해제주기	
제1지시기호 0	초록 : , Summary :
제1지시기호 1	해제 :
제1지시기호 b	[표시상수 없음]
765 원어저록	~의 번역., Translation of :
767 번역저록	~로 번역., Translation as :
770 부록 및 특별호 저록	별책부록 : , Has supplement :
772 모체레코드저록	~의 별책부록 : , Supplement to :
773 기본자료저록	수록처 : , In :
775 이판저록	기타 이용가능판 : , Other edition available :
776 기타형식저록	기타 이용가능형식 : , Available in other form :
780 선행기록	
제2지시기호 2	~의 대체., Supersedes :
제2지시기호 3	~의 일부대체., Supersedes in part :
785 후속저록	
제2지시기호 2	~로 대체., Supersedes by :
제2지시기호 3	~로 일부대체., Supersedes in part by :

또 다른 측면에서의 개정에 대한 요구가 틀림 서형식, 전거형식 및 소장정보형식의 추가제정 없이 대두되리라 생각된다. 빠른 시일내에 고 과 기존 형식들과의 통합형식이 개발되기를 바

라 하지 않는다.

개정연구를 진행하면서 1980년대초 KOR-MARC에 대한 선학들의 개인적인 헌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본고에서 제시한 논의가 「情報의 共有」라는 MARC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뜻에서 KORMARC의 완성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혹시 연구진들의 淺學으로 잘못 이해된 부분이 있다면 諸賢들의 가르침이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과학기술처(1992). 광기술을 이용한 보고서관리시스템 구축연구-2차 년도-(대전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KSRI-92-023-IR.
- 국립중앙도서관(1984).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표준포맷-단행본용(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1992).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KORMARC)-단행본용 포맷-(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 사공철, 김태수, 김석영, 김성혁(1991).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KORMARC)에 관한 연구-비도서자료용 포맷-(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 이두영, 최석두, 이상현, 오동근(1991).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KORMARC)에 관한 연구-단행본용 포맷-(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 최석두, 이상현(1991). “분담목록용 형식으로서의 KORMARC 형식에 관한 연구”, 情報管理學會誌, 8(1). pp. 17-32.
- 玄主變(1987). 自動化目錄法序說(서울 : 亞世亞文化社).
- 현규심, 김남석, 김이검, 홍재현(1991).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KORMARC)에 관한 연구-연속간행물용 포맷-(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 ANSI Z39. 47-1985. Extended Latin Alphabet Coded Character Set for Bibliographic Use.
- Crawford, Walt(1989). MARC for Library Use. 2nd ed. (Boston : G. K. Hall).
- IFLA(1977). International Target Audience Code(ITAC) : A Proposal and Report on Its Development and Testing(London : IFLA International Office for UBC).
- ISO 646-1983. Information Processing-ISO 7-bit Coded Character Set for Information Interchange.
- ISO 2022-1986. Information Processing-ISO 7-bit and 8-bit Coded Character Sets-Code Extension Techniques. 3rd ed.
- ISO 2709-1981. Documentation-Format for Bibliographic Information Interchange on Magnetic Tape.
- KS C 5601-1989. 정보 교환용 부호(한글 및 한자).
- KS C 5657-1991. 정보교환용 부호 확장세트. Library of Congress(1987). USMARC Specifications for Record Structure, Character Sets, Tapes (Washington, D. C. :

Library of Congress).

Library of Congress(1988). USMARC Format for Bibliographic Data Including Guidelines for Content Designation, Vol. 1-2 (Washington : Library of Congress).

McAllister, Caryl and A. Stratton McAllister (1979). "DOBIS/LIBIS : an Integrated

Online Library Management System,"

J. Lib. Auto., 12(4). pp. 300-313

McPherson, Dorothy D., Karen E. Coyle and Teresa L. Montgomery(1982). "Building a Merged Bibliographic Database :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Experience," Inf. Tech. Lib., 1(4). pp. 371-380.